

긴급점검 위기의 광주시립예술단 이대로 좋은가

제작비 턱없이 부족... 작품 질 저하·관객수 급감

예산 126억원 중 82%가 인건비로 단원들 노쇠화... 오디션 잇단 마찰

광주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 수가 비슷한 대전이 4개, 인천 역시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는 지난해 극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국극단 등 모두 7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7개 단체 단원은 2012년 9월 현재 비상임 단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80명이다. 총 예산은 126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03억원 수준이며 7개 예술단체의 공연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해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된 단체는 85명이 활동하고 있는 교향악단으로 38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무대에 서는 단원 없이 스태프로만 꾸려진 시립극단은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반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 4개 단체를 운영중인 대전의 경우 총 예산은 107억 수준이며 공연 예산은 25억에 달한다. 교향악단의 경우 총 예산이 43억 2000만원, 공연 예산은 7억 1000만원이며 무용단은 23억원 중 5억 3000만원을 공연 예산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체들이 공연 횟수(9월)는 대전과 큰 차이가 난다.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 4개 단체의 공연 횟수는 167회인 반면, 광주 7개 단체 공연은 212회에 그쳤다.

에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타 지역의 경우 완성도 등을 위해 점차 줄여가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무려 122회에 달하고 실제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정기·수시 공연 등은 90회에 그쳤다.

시립예술단이 무대에 올리는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관객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6개 단체가 활동했던 지난해의 경우 288회 공연에 관람객 수가 14만 2000명이었지만 시립극단이 창단되면서 단체가 늘고 횟수도 305회로 늘었지만 관객 수는 11만 9000명으로 2만 3000여명이 줄었다.

특히 무용단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대부분인 타 지역과 달리 ‘발레’라는 특수 장르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당 최소 8~9억원을 사용하는 국립발레단과 비교해 1년 공연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한 점이나 상임단원이 34명에 불과해 작품마다 객원들을 활용해야하는 부분 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무용계의 냉정한 평가를 시립무용단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원들이 노령화 문제는 거듭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용단의 경우 ‘아줌마 발레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원들의 노령화 문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터지고 관객수도 급감하는 등 광주시립예술단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립무용단의 공연 모습.

■ 시립예술단체 인원·예산 현황 (2012년 9월1일 현재·단위 : 명/백만원)				
단체명	인원	총예산	인건비	공연예산
교향악단	85	3859	3434	306
국극단	48	1936	1700	215
무용단	38	1658	1319	312
국악 관현악단	49	1855	1671	139
합창단	48	1929	1760	156
소년소녀 합창단	6	439	269	91
극단	6	860	237	563
계	280	12536	10390	1782

〈자료:광주시립문화예술과〉

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예산 확보를 통해 무용단 스텝으로 활용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발전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립교향악단 문제로 전면에 부각된 오디션 평정 관련 문제는 시립예술단 노조와 문화회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현 삼십지 휘자가 진행한 평정에서 15명이 무

기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대해 광주 지방법원이 오디션 절차가 부합했다고 단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표면화 됐다.

극단을 제외하고 6개 단체 186명이 활동중인 예술단 노조는 “오디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디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1년

경우 무용 전공 단원에게 약기로 오디션을 보게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조는 오디션 제도 개선과 함께 예술감독 재위촉과 관련한 단원의견 반영 등을 단체협상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립예술단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더 강력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등장하면서 ‘권리’만 쟁길 뿐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변변한 연습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다. 무용단의 경우 연습실이 한 곳 뿐이어서 군무진들이 연습을 할 경우 솔리스트 등은 옛 시립미술관 자리를 사용하는 국악관현악단도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김미르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뱀 그림으로 삶의 희망 찾다



⑬ 뱀

어느 철학자는 시간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인류의 최대 업적이라 한다. 시간의 발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동안 잊고 지나다가도 새해가 되면 시간의 존재, 시간의 매듭에 대해 생각해본다.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막고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날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새해 새날이 밝았다. 올해는 게사년 뱀의 해. 뱀에 관한 문화적 상징이 다양한 만큼 문화이나 미술에서 뱀의 이미지는 여러 얼굴로 읽힌다. 천경자(千鏡子·1924~)화백은 모두가 꺼려하는 뱀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 ‘구원의 돌과구’로 삼은 작가로 유명하다.

고흥출신으로 동경여자미술대학을 나와 전남여고, 홍익대학교수로 활동했던 천경자는 52년 부산 개인전에서 뱀 35마리를 그린 ‘생태(生態)’라는 작품으로 한국화단에 파문을 일으킨다. 당시는 초혼 실패 후 두 아이를 키워야했던 화가가 뱀의 연인과의 새로운 사랑으로 가슴을 태우던 시기였다.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화사한 빛깔의 환생을 꿈꾸었던 화가는 꿈을 거리는 뱀에서 삶의



천경자 작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희망을 찾았다. 치밀한 구도와 묘사력, 새로운 리얼리티의 뱀그림으로 화가는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 후 뱀은 오래도록 그의 아이러니 된다.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작)는 자신의 22세 때를 회상한 화가의 초상이다. 화가에게 삶은 드라마틱했으나 장밋빛은 아니었다. 우울한 날들의 허무함, 슬픔만이 화면에 가득하다. 역시 뱀이 압권이다. 머리에 화관처럼 쓰고 있는 네 마리의 뱀은 힘아면서 동시에 집이기도 한 화가의 자식들을 상징한다.

현재 큰딸이 사는 뉴욕에서와 병중인 노화가자는 “언제고 뱀을 또 그려 보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계사년을 맞아 뱀이 허물 벗듯 병마의 고통을 벗어던지고 캔버스 위에 뱀을 다시 풀어놓을 노화가의 한 해를 소망해 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日만평

- 김중두



쓴소리 해줄 때가 좋은줄 알아라

차당선인 “법인세율 인상 반대, 취득세 감면 조속 연장”

상공인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감면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연장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

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여분간 가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출 문제에서도 더 수월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 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고용 문제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장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상공회의소 회원 95%가 중소기업인데 대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일로점 (합동공회 상점) 02-2275-0667, 구 강남점 (강남고교역) 02-3477-5110, 용인점 (용인역) 02-726-0220, 송파점 (선릉역) 02-419-3388, 선릉점 (선릉역) 02-2985-1836, 경기 안양점 (구 시인재) 032-421-2288, 부평점 (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 (남문역) 03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 (신안산역)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역) 031-652-5110, 용인점 (용인역) 031-336-1090, 오산점 (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 (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 (내 초점) 031-911-0000, 부산점 (부산역) 051-818-8800, 서안점 019-0016, 남포동점 (남포동역) 053-258-7200, 울산점 (울산역) 052-28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055-281-6000, 전주점 (중앙역) 0561-45-9870, 대구점 (중앙역) 053-425-4440, 상역점 (상역역) 053-425-1511, 남일동점 (마포역) 053-425-7575, 경북 포항점 (포항역) 054-244-5110, 천안점 (구 천안역) 056-859-2245, 광주점 (구 도림역) 062-225-5110, 광주점 (매곡역)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순천역) 061-752-8845, 전북 전주점 (전주역) 063-252-5728, 군산점 (구 서해방역) 063-446-0188, 익산점 (익산역) 063-809-5000, 남원점 (남원역) 063-632-5535, 대전 대덕점 (도농역) 042-254-5110, 대전점 (문충역)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042-235-35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041-535-3588, 광주점 (광주역) 041-352-5110, 충북 청주점 (청주역) 043-222-1177, 충주점 (충주역) 043-622-1414, 강원 강릉점 (강릉역) 033-662-5588, 춘천점 (춘천역) 033-253-5110, 제주 제주시점 (제주시점) 064-733-433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 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 인증, CE 0120 CEPR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세기보청기 (구도심점) 062-225-5110

세기보청기 (구도심점) 062-225-5110

■ 광주 역운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651-4477

세기보청기 (역운점) 062-2651-4477

세기보청기 (역운점) 062-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세기보청기 (순천점) 061-752-8845

세기보청기 (순천점) 061-752-8845